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하영희[†] · 김경연

네브라스카링컨 · 대학교 가족 소비자학과 포스닥 ·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652명(평균연령=15.0; 47.9% 남, 52.1% 여)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 자기통제, 죄책감, 훈육방식, 사회경제적 지위, 학년(연령) 및 성차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죄책감, 자기통제, 훈육방식 및 학년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나 성차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성차는 죄책감을 통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기통제와 부모의 훈육방식을 경로로 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들 중 죄책감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다. 이런 결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주제어 : 도덕적 금지행동, 죄책감, 자기통제, 훈육방식, 사회경제적 지위

최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점점 저연령화, 집단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문화체육부, 2000),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즉 청소년들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금지(proscriptive)하는 행동이란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에 해로움을 주는 행동 즉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금지하는 사회 규범성이 강한 행동으로서 속이기와 훔치기 등이 대표적인 행동이며 이런 행동들은 타인의 재산과 권리에 해로움을 주거나 더 나아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금지행동을 하였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금지행동이

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규칙 위반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적 피해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비행의 종류 등을 제외한 속이기, 훔치기 및 반항하기와 같은 규칙위반 행동을 말한다.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은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한 문제는 낮은 학업성취, 비행 및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와 같은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Farrington, 1995; Hudley & Grabam, 1993). 이런 연구결과들에 의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연구들이 축

[†] 교신저자 : 하영희(fodream@hanmail.net)

적되고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덕적 금지 행동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의 큰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서 연령 및 성차 이외에 죄책감과 자기통제가 최근 주목 받는 변인들이었다. 먼저,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한 개인적 변인으로서 연령과 성차를 볼 때, 이들 변인들은 빈번히 다루어지는 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도덕적 금지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안진, 한유진 및 최나야(2002)는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공격성을 연구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 반면, 김경연과 하영희(1998)는 일반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과 연령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라 규칙위반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입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중학생을 비교 연구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성차와 관련한 도덕성 관련 연구에서 남성중심의 도덕성 지향인 Kohlberg의 공정성 접근과 여성중심의 Gilligan의 배려지향성 접근은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Gilligan(1982)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공정과 정의성보다는 이해·협조·봉사 등에 보다 더 관심을 두도록 사회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변인의 관계연구에서 죄책감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촉진요인으로(Hart & Chmiel, 1992; Tangney, 1991; Williams & Bybee, 1994), 자기통제는 반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억제요인으로(Bandura, 1991; Shaffer, 2000)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고 있다. 정신분석이론가들은 부모에 의하여 형성된 초자아가 사회적 행동양식 및 규칙에 미치지 못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죄책감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고, 사회학습이론가들은 남이 보지 않거나 보상이 없어도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은 자기통제 때문으로 보았으며, 사회화된 많은 행동들은 내적으로 통제된 결과로 보았다. 따라서 죄책감이란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느끼는 자기비난적인 부정적 정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통제는 순

간적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자기통제는 한 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 및 사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죄책감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을 적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죄책감이 순간적인 충동성과 욕구를 자제하는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 및 죄책감과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도덕성과 죄책감과 관계연구에서는 죄책감이 위반행동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김경연, 하영희, 2000; 박주란, 1995;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Maccoby, 1959; Santrock, 1975)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연령과 성차가 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김경연, 하영희, 2000). 도덕성과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은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과의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 비행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자기통제의 결여인 충동성이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이미경, 1995; 정혜승, 1995; Schwarz, J., Scharager, J. & Lyons, 1983). 자기통제와 관련하여 연령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연령과 자기통제가 상관이 있다는 연구(Kopp, 1982)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이경남, 2001)가 있어 역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차와 자기통제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상관이 있다는 연구(이경남, 2001; Kendall & Wilcox, 1979)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허수경, 이경남, 1996)들이 있어 재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통제는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발달되므로(김현숙, 1999)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인과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광도(2001)는 사회계층, 훈육방식, 자기통제 및 범죄행위간의 연구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밝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통제에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청소년의 연령, 성차, 죄책감 및 자기통제와 같은 개인적 변인 이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훈육방식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정환경변인으로 검증되고 있다(송숙자, 1989; Shaffer, 2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란 한 가정이 사회적 경

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는 자녀가 어떤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자녀의 행복감과 자기통제감 향상에 관심을 둔다(Maccoby, 1980).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하류층 부모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타인의 통제나 지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Hoffman, 1970). 그리하여 하류층 부모는 자녀에게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들의 금지행동을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변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 보다 금지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김광수, 1990; 김동철, 1987)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금지행동은 관련이 없다는 연구(김선남, 1994; 남재봉, 1991)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금지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비일관적일 뿐더러 또 이들은 대체로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만을 밝힌 연구가 다수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매개변인을 통하여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지위 외에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인 부모의 훈육방식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로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자녀에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며, 죄책감과 이타심을 가지며, 또 공격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훈육하려고 한다. Hoffman(1977)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방식을 설득형(induction), 애정철회(love-withdrawal) 및 세력단언(power-assertion)의 세 가지 접근으로 나누어 도덕적 금지 및 돕기행동과 훈육방식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설득형으로 훈육 받은 아동이 애정철회나 세력단언의 훈육을 받은 아동보다 사회가 금지하는 행동을 더 적게 하며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에게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쁜지를 귀납적으로 설명해주는 설득적 훈육방법이 무조건 사랑을 철회해 버리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녀를 처벌하는 세력단언 훈육보다 자녀의 도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설득형 훈육방식은 자녀의 죄책감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Hoffman, 1970)가 있다. 즉 아동의 그릇된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귀납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자녀의 죄책감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경연과 하영희(2000)가 부모의 설득형 훈육이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Aronfreed(1964)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철회나 권력에 의한 처벌이 자녀의 죄책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훈육과 양육방식이 자기통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훈육하는 이유를 설득형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불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처벌하는 것 보다 자녀의 유혹저항력을 더 높게 하며(Baumrind, 1990),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설명적인 훈육태도는 자녀의 금지지향적인 가치(proscriptive value)를 감소시켜 비행을 예방하게 하고 내적통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Webster, 1981).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는 낮으며(이경님, 2001),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충동성을 통제하여 자신의 환경적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Olsen, Bates & Bayles, 1990). 이와 같이 부모의 훈육방식이 죄책감 및 자기통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훈육방식이 죄책감과 자기통제를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금지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증 역시 요구된다. 한편,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훈육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아들에게는 처벌과 같은 세력단언 혹은 통제적 훈육을 딸에게는 귀납적 추리법이나 애정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이경님, 2001; Zussman, 197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관련변인들

이 도덕적 금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나, 대체로 이 연구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거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이들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한 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가 점점 증가해 감을 볼 때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개인변인으로서 학년(연령), 성차, 죄책감 및 자기통제를 선정하고 가정환경변인으로서 부모의 훈육방식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과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간의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인과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보완해 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훈육방식은 죄책감, 자기통제 및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2. 죄책감은 자기통제 및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그리고 자기통제는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이하 금지행동으로 명

명)에 대한 청소년의 연령(학년), 성차,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훈육방식, 죄책감 및 자기통제와의 인과적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대한 연령, 성차, 죄책감, 자기통제, 훈육방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개념적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청소년의 연령과 성차 및 사회경제적 지위는 훈육방식, 죄책감, 자기통제 및 금지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훈육방식, 죄책감 및 자기통제를 경로로 하여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훈육방식, 죄책감 및 자기통제는 금지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훈육방식은 죄책감과 자기통제를 통하여 그리고 죄책감은 자기통제를 통하여 각각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3개의 지역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1,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모두 652명이다. 중학교 1년,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대한 학년(연령) 효과를 보기 위하여 2년 간의 학년(연령) 차를 두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청소년의 학년 비율은 중1학년이 31.9%, 중3학년이 31.3%, 고2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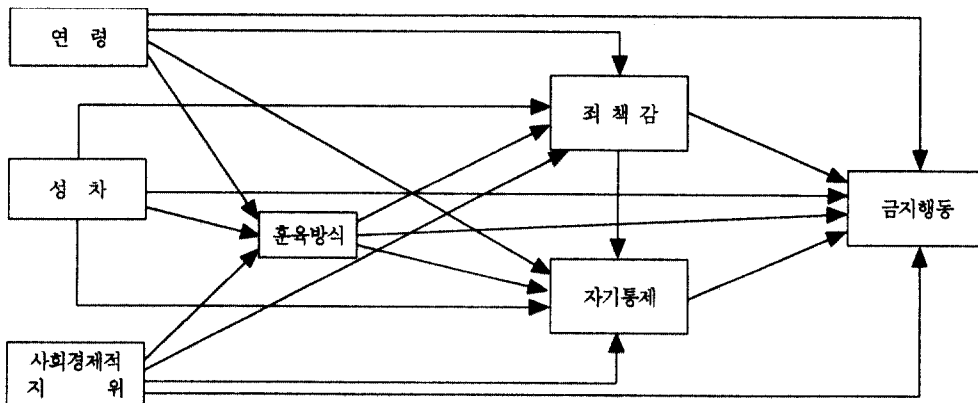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년이 36.8%이었고, 성별은 남자가 47.9%, 여자가 52.1%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1-45세가 46.9%,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53.4%이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5.1%, 어머니의 교육수준 역시 고졸이 58.0%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서비스직이 43.7%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52.6%이었으며, 취업주부로는 생산·서비스직이 20.4%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01~200만원이 56%로 보고되었다.

측정도구

도덕적 금지행동 :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규칙위반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를 구성한 과정을 요약하면, 중학교 1학년 80명과 고등학교 2학년 80명에게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금지하는 행동 즉 규칙위반 행동이란 어떤 행동인가'에 대한 개방형의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11개 문항과 이미경(1995)의 규칙위반 행동 척도 중 8개 문항을 더하여 최종 19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금지행동에 대한 19개의 문항 내용은 'کن닝하기, 교사 및 부모에게 반항하기 그리고 흡치기' 등이 있으며 이들 행동은 주로 일반적인 위반 행동에 해당하므로 각 행동의 점수에 대한 가중치는 주지 않았다. 각 척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점수 범위는 19점에서 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금지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김경연과 하영희(1998, 2000)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2이었다.

죄책감 : 청소년의 죄책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연과 하영희(2000)의 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학교 1학년 80명과 고등학교 2학년 80명에게 자신의 경험상 죄책감을 많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10개 문항과 배회정(1990)의 죄책감 척도 중 4개 문항을 더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책감 측정 문항은 죄책감을 느끼는 수준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음'의 1점에서 '항상 죄의식을 느낌'까지 3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

도의 점수범위는 14점에서 42점까지이다. 따라서 점수가 많을수록 죄책감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현숙(1998)이 사용한 자기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현숙은 Kendall과 Wilcox(1979)의 SCRS와 Humphrey(1982)의 T-SCRS 도구를 번안하여 청소년에게 맞도록 설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다. 점수가 많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 .64로 나타났다.

훈육방식 :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연과 하영희(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80명에게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해 자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설득형, 애정철회형 및 권력행사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세 유형은 Hoffman(1977)의 부모 훈육방식과 일치하였으며,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을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반응하게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세력단언형은 '화를 내시며 심하게 야단을 치시거나 손찌검을 하시며, 용돈을 주지 않기도 하신다'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 청소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및 한달 수입을 서열화하여 양적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2001년 2월 14일~2월 20일 사이에 중학교 1,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9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65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

료는 SPSS WIN 1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점수인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학년(연령), 성차,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훈육방식(설득형), 죄책감, 자기통제 및 금지행동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청소년의 금지행동은 학년과는 유의한 정적상관($r=.16, p<.01$)을 보였으며, 성차($r=-.11, p<.01$), 훈육방식($r=-.18, p<.01$), 죄책감($r=-.43, p<.01$) 및 자기통제($r=-.36, p<.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금지행동 수준은 더 높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소년의 죄책감과 자기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금지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사회경제적 지위($r=.08, p<.05$)와 죄책감($r=.25, p<.01$)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학년($r=-.07, p<.05$)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년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자기통제를 더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년($r=-.11, p<.01$)과 성차($r=.12, p<.01$)는 죄책감에 각각 부적상관 및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학년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훈육방식($r=.12, p<.01$)과 정적상관을 보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 훈육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귀분석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개인변인 및 가정 환경변인의 영향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개념적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의 훈육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 훈육방식으로 지각하였으며 이 변인의 훈육방식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0%정도였다. 청소년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훈육방식, 학년 및 성차 변인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죄책감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하여 이들 변인들의 죄책감에 대한 총 설명력은 23%정도였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죄책감과 사회경제적 지위였으며, 이들 변인들의 자기통제에 대한 총 설명력은 27%였다. 이는 청소년의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자기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들은 죄책감, 자기통제, 훈육방식 및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금지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28%였다. 즉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할

표 1. 청소년의 금지행동과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N=652)

	1	2	3	4	5	6	7
1. 학년	1.00						
2. 성차	.04	1.00					
3. 사회경제적지위	.02	.12**	1.00				
4. 훈육방식	.01	.02	10**	1.00			
5. 죄책감	-.11**	.12**	.01	.16**	1.00		
6. 자기통제	-.07*	.05	.08*	.05	.25**	1.00	
7. 금지행동	.16**	-.11**	-.04	-.18**	.43**	-.36**	1.00

남=0, 여=1; 설득형 훈육방식=1, 기타 훈육방식(일원변량분석, Scheffe 결과)=0

* $p<.05$ ** $p<.01$

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금지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결과 (N=65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F
훈육방식	ses	3.04	.11**	.10	7.39**
	훈육방식	.97	.16**	.16	17.85**
죄책감	학년	-.71	-.12**	.20	13.64**
	성차	1.22	.12**	.23	12.56**
자기통제	죄책감	.30	.26**	.25	45.77**
	ses	.17	.09*	.27	25.52**
금지행동	죄책감	-.91	-.44**	.19	149.26**
	자기통제	-.49	-.28**	.26	112.22**
	훈육방식	-1.38	-.11**	.27	79.53**
	학년	1.18	.09*	.28	62.18**

남=0, 여=1; 설득형 훈육=1, 기타 훈육방식(일원변량분석, Scheffe 결과)=0 ses : 사회경제적지위

* $p < .05$ ** $p < .001$

인과모형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경로분석에 의한 인과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죄책감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beta = -.4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자기통제($\beta = .26, p < .001$)를 경로로 하여 금지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기통제($\beta = -.28, p < .001$)는 금지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표 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각 변인들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인과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 년	.09	.05	.14
성 별	-	-.05	-.05
ses	-	-.05	-.05
훈육방식	-.11	-.08	-.19
죄책감	-.44	-.07	-.51
자기통제	-.28	-	-.28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훈육방식($\beta = -.11, p < .001$)은 금지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 죄책감($\beta = .16, p < .00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금지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년변인은 금지행동($\beta = .09, p < .05$)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발견됨과 동시에 죄책감($\beta = -.12, p < .001$)을 통하여 금지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금지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훈육방식($\beta = .11, p < .001$)과 자기통제($\beta = .09, p < .05$)를 통해서 금지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차 역시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죄책감($\beta = .12, p < .001$)을 통하여 금지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변인들이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인과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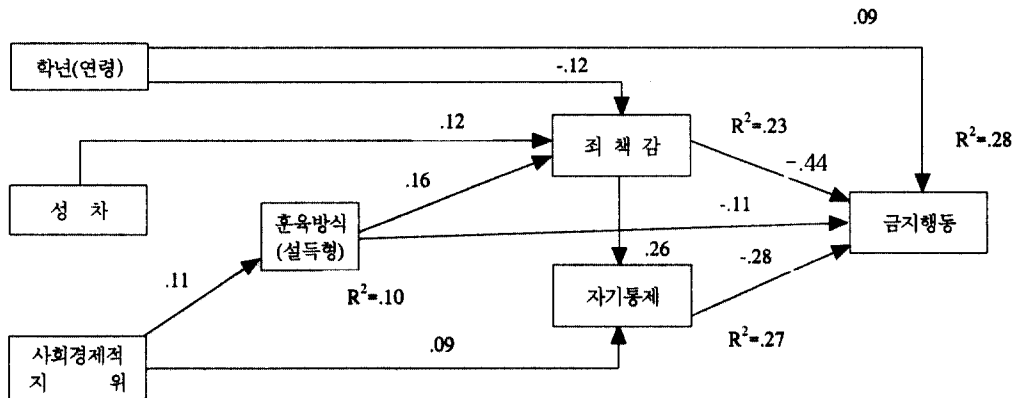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과 같으며,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죄책감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 1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652명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학년, 성차, 자기통제, 죄책감,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훈육방식을 선정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며,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죄책감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청소년의 죄책감이 높을수록 금지행동을 적게 함을 의미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스스로 내적 도덕적 표준을 설정하여 금지행동을 적게 하며 자기 때문에 타인의 권경이 시작되고 지속된다고 믿을 때 죄책감을 더욱 많이 느껴 사회에 이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려는 주장(Hoffman, 1977)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죄책감과 병행해서 발달된다는 정신분석이론과도 부합된다. 그리고 죄책감이 금지행동 수준을 낮게 한다는 연구결과(김경연, 하영희, 2000, Bandura et al, 1996)와 일치하였으며, 박주란(1995)은 시험부정행위가 성적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의 죄책감과 위반행동은 부적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도덕적 표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느끼는 후회 혹은 자기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죄책감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은 자기통제와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통제가 높은 청소년이 금지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중요한 예언변인이 자기통제라는 주장(민수홍, 1996)에 의해 지지되며, 자기통제를 잘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 경험이 적거나 흡연 경험이 적다는 김현숙(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규제하고 절제하

는 것은 사회화의 필수이며 또 타인과 만족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흥미를 지연 혹은 억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통제는 금지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년 변인은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학년이 높을수록 금지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이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Klartri, 1996)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금지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한다는 결과는 대입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환경적·심리적 특성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비행과는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경주, 1997; 최정곤, 1998; Compass, Maderene & Fondacaro, 1988)와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또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관계망도 더욱 확충(김윤경, 1998)되어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또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친구의 도덕적 금지행동 수준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연구(남현미, 1999; 오미경, 1997; 하영희, 2001)에 의해 지지된다. 청소년의 성차 역시 청소년의 금지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여아가 남아보다 금지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거짓말을 더 적게 하거나 공중질서를 잘 지킨다는 연구결과(하영희, 박혜원, 1996)와 우리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금지하는 성 경험, 흡연 및 음주 등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현숙(1998)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여아가 남아보다 금지행동을 더 적게 한다는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남자에 비해 엄격한 통제로서 여자에게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사회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은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설득형의 훈육방식이 금지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귀납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다른 부모의 자녀들보다 공격행동을 적게 하거나 책임감이 강하며, 처벌적인 훈육방식을 사

용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오히려 그 처벌을 모방함으로써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Maccoby, 1980; Martin, 1975)에 의해 지지된다. 설득형 훈육방식은 죄책감과도 정적상관을 보여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를 바라는 대신,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이 자녀의 내면화된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알게 한다. 본 연구결과는 반항기 청소년 자녀의 죄책감을 발달시키고 금지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부모의 귀납적인 설득형의 훈육방식에 의한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훈육방식이 자녀의 자기통제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훈육방식과 자기통제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아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Baumrind, 1990; Webster, 1981)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추후 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언 변인은 죄책감, 자기통제, 훈육방식 및 학년순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를 잘 할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금지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 중 죄책감은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연구결과는 기존의 국내 도덕교육에서 강조하는 가치갈등 혹은 문제해결 중심의 인지중심적인 교육에 밀려 다소 등한시 되어온 도덕적 정서교육 역시 필요함을 시사하며, 도덕적 인지 및 정서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도덕교육은 보다 효과적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죄책감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여아의 경우 죄책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설득형 훈육방식이 더 큰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잘못에 대한 훈육이 추론적인 설득형일 때 죄책감 수준이 더욱 높다는 선행연구(김경연, 하영희, 2000; Hoffman, 1977)의 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애정적이고 민주적일 때 부모의 지시나 말을 잘 따르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주장(Hetherington & Martin, 1972)과 부합된다. 자기통제

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죄책감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죄책감이 더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위반행동을 더 많이 자책하는 아동은 유혹에 더 견디기 쉽다는 주장(Grusec & Kuczynski, 1977)과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을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능력은 자기조절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사회적 학습이론과도 부합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본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김현숙(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통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기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단정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른 변인과는 달리 거의 고정변수이므로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 및 자기통제와 관련변인에 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여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훈육방식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훈육방식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사회계층이 높은 부모들은 사회계층이 낮은 부모들 보다 그들의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훈육에 있어서도 설득적인 언어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Maccoby, 1980)과 경제적으로 곤란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로 향하여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훈육방식을 보인다는 경제적 스트레스(economic distress) 가설에 의해 지지된다.

셋째,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죄책감은 금지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부적인 영향을 미쳐 금지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일탈행위가 적거나 속이기를 적게 한다는 연구(Bybee, Williams & Merisca, 1994; Mosher, 1979) 와 죄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자아가 높다는 연구(정은수,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정서로서 죄책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주장(Tangney, 1991; Williams & Bybee, 1994)에 의해 지지된다. 즉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자기 비난에 속하는 죄책감은 금지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자기통제를 경로로 하여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떠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영향을 주어 금지행동을 예방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자기 평가 경험이 현재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는 사회학습이론과 역시 부합된다. 한편, 청소년의 자기통제 변인은 금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통제 훈련이 행동수정에 유효하였다는 선행연구들(정영자, 1998; 주광진, 2000)과 일맥 상통한다. 그리고 자기통제가 외현적인 행동문제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선희, 김경연, 1999; Hinshaw, 1992)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타인과의 만족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물론 자기의 욕구와 만족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육방식은 죄책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금지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추리훈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자녀의 유혹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일탈행동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erry, Bussy, & Freiberg, 1981)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추론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은 자녀의 옳지 못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내면화된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는 연구(하영희, 2001; Hoffman, 1977)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훈육하는가가 자녀의 도덕적 금지행동 수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방식 역시 청소년의 금지행동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성차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차는 죄책감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설득형 훈육방식과 자기통제를 통하여 금지행동에 각각 간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고정적인 변인인 성차와 사회

경제적지위가 청소년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죄책감과 자기통제 그리고 훈육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임을 볼 때 도덕적 금지행동은 개인의 고정변수보다는 개인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변인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과를 재확인하는 추후연구는 이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료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차우규(1997)는 아동 및 청소년의 도덕문제에 부모의 수입보다는 훈육방식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여 이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인과모형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죄책감, 자기통제, 설득형 훈육방식 및 학년 순이었으며, 여기서 죄책감이 클수록 자기통제를 잘할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을 설득형으로 지각할 때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금지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성차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차는 죄책감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는 설득형 훈육방식과 자기통제를 통하여 금지행동을 적게 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한 인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죄책감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은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은 '실제'와 '지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의 금지행동, 개인변인 및 가정환경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관련변인들이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혔다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죄책감이 청소년의 금지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볼 때, 금지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대화 및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학교를 중심으로는 도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놀이와 같은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아의 경우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충동성 혹은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으로, 청년의 금지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관련변인 중 본 연구에서 함께 다루지 못한 변인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보다는

어떤 변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미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왜곡된 사회인지 요인인 도덕이탈(moral disengagement)변인과 청소년기의 경우 또래변인 역시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한 인과 분석 연구는 청소년들의 금지행동을 더욱 잘 설명해 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기광도 (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간의 관계 : 자녀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 (1990). 소외와 문제행동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연·하영희 (1998). 사회화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 한국청소년연구, 9, 2, 69-83.
- _____ (2000). 죄책감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위와의 관계, 가정관리학회, 18, 1, 115-125.
- 김동청 (1987).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범죄방안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희·김경연 (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가정관리학회, 17(1), 155-166.
- 김윤경 (1998).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재봉 (1991).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 (2000). 청소년 백서.
- 민수홍 (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주란 (1995). 도덕적 판단능력, 죄책감 그리고 감시상황요인이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회정 (1990). 비행청소년 범죄 및 가치의식 조사를 통해 본 선교의 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송숙자 (1989). 도덕적 판단능력과 도덕적 행동에 관한 연구 : 본인의 지능 및 학력과 가정의 지위 및 과정 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미경 (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0.
- 이경남 (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주 (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 (1995).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자 (1998). 자기통제훈련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아이에 정의적 특성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수 (1985). 죄의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승 (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광진 (2000). 아동의 자기통제력 신장이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유규 (1997). 초·중학교 학생들의 도덕 의식 및 도덕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곤 (1998).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및 비행.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 · 박혜원 (1996). 귀인경향에 따른 아동의 도덕성 발달 분석. *대한가정학회*, 34, 3, 271-282.
- 하영희 (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 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수경 · 이경님 (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발달. *아동학회*, 17(2), 221-233.
- Aronfreed, J. (1964). The Origin of self criticism. *Psychological Review*, 71, 193-218.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illiam & Jacob(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 Theory, N.Y : Hillsdale, 45-96.
- Bandura, A., Barbaranelli, G., Caprara, C.,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2, 364-374.
- Baumird, D. (1990).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Hillsdale, N. J : Erlbaum.
- Bybee, J., willams, C., & Merisca, R. (1994). Greater guilt it related to prosocial, academic,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Poster presented at the 102nd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 Compass, B. E., Madarne, R.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05-411.
- Farrington, D. P. (1995).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 Key findings from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3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M. 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sec, J. E., & Kuczynski, L. (1977). Teaching children to punish themselves and effects on subsequent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48, 1296-1300.
- Hart, D., & Chmiel, S. (1992). Influence of defence mechanism on moral judgement development, *Development Psychology*, 28, 4, 727-730.
- Hetherington, E. M., & Martin, B. (1972).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N. Y. : John Wily.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 casual & relationship underlying mechanism. *Psychological Bulletin*, 111, 127-155.
- Hoffman, L. W. (1977). Changes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32, 644-657.
- Hoffman, M. (1970). Moral development. In P.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2, N.Y. : Wiley.
-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Kendall, P. C., & Wilcox, L. L.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latri, P. (1996). Aggression, peer vitimiz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among rural indian you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Kopp, C. B. (1982). The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Maccoby, E. E. (1959). Role-Taking in childhood and its consequences for social learning. *Child Development*, 30, 239-252.

- _____ .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N. Y.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Review of children development research*, Vol. 40.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sher, D. L. (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E. Izard(ED), *Emotions and personality in psychology*, 105-129. N. Y. : Plenum Press.
- Olsen, S. C., Bates, J. E., & Bayles, K. C.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3). 317-334.
- Perry, D. G., Bussey, K., & Freiberg, K. (1981). Impact of adults' appeals for sharing on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disposition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27-138.
- Santrock, J. W. (1975). Father absence, perceived matern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in boys. *Child Development*, 46, 753-757.
- Schwarz, J., Scharager, J., & Lyons, A. (1983). Delay of gratification by preschools. *Child development*, 54, 620-625.
- Shaffer,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Wadsworth.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4, 598-607.
- Webster, L. (1981). Value orientation perception of child rearing, and locus of control among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Mexican adolescent mal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Vol 41(12B, Williams, C., & Bybee, J. (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5, 617-623. Pt 1).
- Zussman, J. U. (1978). Relationship of demographic factors to parental discipline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4, 685-686.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Moral Proscriptive Behavior and Individual and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Young Hee Ha(post doc.) and Kyong Yeon Kim(professor)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Dept of Child · Hou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 of adolescents' moral proscriptive behavior and self-control, guilt, parent disciplinary styles. A total of 652 adolescents (M age = 15.0; 47.9% boys, 52.1% girls) of seventh, ninth, and eleventh graders were selected from Pusan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at guilt, self-control, parent disciplinary styles, and grade(age) had direct paths to adolescents' proscriptive behavior. Ses was indirectly related to adolescents' proscriptive behavior through self-control and parent disciplinary styles. Gender was indirectly related to adolescents' proscriptive behavior through guilt. Discussion focussed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guilt in predicting adolescents' proscriptive behavior.

Key words : proscriptive behavior, guilt, self-control, parent disciplinary styles, ses

원고접수 : 2002년 12월 26일
심사통과 : 2003년 2월 10일